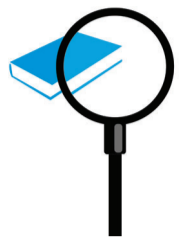


# 환상에 대한 기이한 감성...매혹적인 판타지 세계로 초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환상의 미술

S 엘리자베스 지음, 박찬원 옮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환상이 있다. 대부분 그 환상은 어린 시절 갖게 된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면서 동화의 나라를 꿈꿀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동물원이나 미술관에서 보았던 특정 장면을 모티브로 자신만의 환상을 그렸을 수도 있다.

사건적 의미의 환상은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일컫는다. 환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미지의 일이나 실현 불가능한 특질 때문에 더 아름답게 포장된다. 등장 눈앞에 구체화되지 않기에 환상에 대한 열망은 강렬해진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내면에 자신만의 환상의 캐릭터를 지닌다. 그것은 판타지 영화이거나 만화, 소설, 웹툰, 그림 등의 캐릭터일 수도 있다. 즐거움도 기쁨도 사람들을 이끄는 엘리스, 배트맨, 슈퍼맨 등이 그들이다. 어떤 캐릭터는 영웅인 반면 어떤 캐릭터는 빌런이기도 하다.



'죽음과 소녀' 등에 실려 있다.

저자는 "미지의 세계, 신비로운 생명체로 가득한 세계, 비밀과 보물 천지인 별세계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서사시와도 같은 여정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며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상의 세계와 환상의 생명체를 오랜 세월 탐구한 후 다양한 매개를 통해 신비롭고 신화적인 것을 표현해왔다"고 밝혔다.

환상적인 것에 대한 민감한 감성은 예술가들이 지닌 성향 가운데 하나다. 이들을 비범하면서도 놀라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계에 반응하도록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야기이다. 설화, 민담, 우화 등은 서사의 형태로 오랫동안 인류에게 전승돼 왔다. 여기에 예술가들은 그림이나 조각 등을 통해 생각, 환상, 꿈 등을 부여했다. 특히 화가들은 그림을 매개로 판타지라는 세계를 구현했다.

책은 모두 세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방은 '아수와 존재'가 핵심 캐릭터다. 환상하면 사람들은 으레 기이한 생명체, 또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존재들을 떠올린다. 인어, 요정, 유니콘 등 그리고 반인반수 생명체에까지 다양하다.

이반 발리빈의 1905년 작 '시린 낙원의 새'는 가슴 위로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지만 아래로는 새의 몸통이다. 두 팔은 기다란 날개로 이루어진데 반해 두 발은 조류의 발이 달려 있다.

르네 마그리트가 1957년에 그린 '마법에 걸린 왕국'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대변한다. 말의 머리, 아름다운 여인의 눈, 짐승의 코, 그리고 왕궁이 뒤섞인 그림은 동화나 나올 법한 생명체를 표현했다.

두 번째 방 '지식의 탐구'에서는 꿈, 마법, 미스터리, 걸작들에 투영된 환상들이 중요 소재다. 존 앤스터 피츠제럴드의 '꿈에 나오는 것들' (1858)은 불길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분위기 속에서 잠들어 있는 한 여인을 초점화했다. "그의 작품은 환각을 보는 듯해서 마치 악을 먹고 꾸는 꿈의 환상이" 펼쳐지는 듯한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프레더릭 샌디스 등은 마녀들의 마법을, 상징주의 주술사 오달프 룬들은 관능적인 특징을 화폭에 담았다.

마지막 세 번째 방 '신비로운 세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미지의 공간이 대상이다. 찰스 로빈슨의 '무지개 공장' (1926)을 비롯해 베노초 고촐리의 '동방박사의 여행' 연작 중 환상적인 풍경 부분 (1460년경), 리처드 대드의 '요정 발목꾼의 훌륭한 솜씨' (1855-64) 등에는 현실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가 깃들여 있다.

한편 저자는 "환상은 단순히 일상 생활이 고단함



예술가들은 다양한 모티브를 매개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를 표현해왔다. 베노초 고촐리 작 '동방박사의 여행' 연작 중 환상적인 풍경 부분. (미술문화 제공)

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다. 환상은 우리 모두에게 잠재하는 희망과 경이로움을 드러내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다. 따라서 현실의 영웅이 되기 위해 필

요한 것을 꿈과 상상을 통해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미술문화> 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한다

이석재 외 지음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학문도 다변화되고 새로운 분야가 등장한다. 시대의 조류와 맞물려 특정 학문이 각광을 받고 또 어떤 학문은 관심의 영역에서 다소 밀려나기 일쑤다.

세상과 삶은 변하지만 그림에도 변하지 않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디디 변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인문학 분야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등등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그러나 오늘의 인문학도 변화에 무감각할 수는 없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에 놓여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역동적인 사회의 변모 등은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대 인문대학이 엮은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말한다'는 인문학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들 이석재 철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훈 역사학부 교수, 성해영 종교학과 교수, 박상철 언어학과 교수 등 모두 36명 교수가 36명 참여했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진행된 인문학의 변화와 발전을 토대로 인문학에 대한 새 조감도를 제시하기 위해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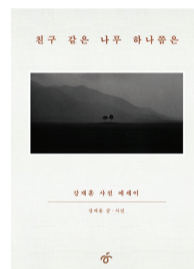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인문학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하다'라는 주제에 따라 모두 12편의 글이 실렸다. 2부는 '인문학에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도입하다'라는 주제에 맞춰 모두 11편의 글을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인문학의 다양성을 향유하다'를 주제로 13편의 글을 수록했다.

정요근 인문대학 기획부학장은 "인문학 분야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망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문학적 통찰력을 키우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사회평론> 3만 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친구 같은 나무 하나쯤은

강재훈 글·사진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들을 찾아다니던 중 만났던 강원도 어느 산골마을 산등성이에 홀로 선 나무 한 그루. 수차례 오가는 동안 자꾸만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던 나무를 내치지 못하고 결국 차에서 내려 인사를 건넸고 금세 나무와 친구가 되었다.

해마다 계절마다 나무를 만나러 가서 사진으로 남겼고 인사를 나눴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 가을에 다녀간 이후 겨울 초입에 다시 찾아간 현장에서 잘려 죽은 나무를 본 그는 허탈했다. 막걸리 한잔을 잘린 그루터기에 올려놓고 절을 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미안했다며, 잘 가라고, 너와 만난 시간이 소중한다고, 고마웠다고...

사진가 겸 산림교육 전문가 강재훈이 쓴 '친구 같은 나무 하나쯤은'은 지난 30년 분교를 찾아 전국을 다니며 만난 수많은 나무와 친구가 된 이야기를 전하는 사진 에세이다.

커다란 바위를 가리며 자라는 소나무, 아이들의 돌팔매질을 그리워하는 감나무, 살이 찢기는 고통에도 길가의 절망을 품은 채 자라는 가로수까지 자신이 만난 멋진 소중한 친구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저자는 100여 컷의 사진을 골라 나무와 교감하며 위로받은 이야기를 곁들였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친구 같은 나무 하나쯤 가져볼 것을 권한다.

"모처럼 나선 숲길에서 만난 어떤 나무를 자신의 나무로 정해 보면 어떨까. 오랜만에 한 번씩 가더라도 그 나무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재미가 참 싱그럽다. 집 가까이 친구 나무를 정하는 것은 어떤가. 아침 출근길에 살피다가 저녁 귀가 시간에 또 살피는 방법도 좋다. 그동안 관심 밖에 두었던 나무 한 그루가 분명 당신에게 위안이 되어 줄 것이다."

<한겨레출판> 2만1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본 헌터

고경태 지음



"나는 앉아 있었다. 얼마 동안 앉아 있었나면... 63만 4560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셈이다."

2023년 충남 아산 성재산에서 양손이 뻐뻐신(군용 전화선)으로 묶인 채, 쪼그려 앉은 모습으로 발굴된 유골 A4-5의 독백이다. 신원도 정체도 미상인 A4-5를 비롯해 일대의 유골들은 깊은 잠에 든 모습이었다고 한다.

함께 발굴된 '4' 자가 새겨진 단추를 통해 아직 어린 중학생도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7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배의 증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폭력의 희생에 유해 발굴을 매개로 심도있게 다룬 책이 나왔다. 최근 고경태가 펴낸 '본 헌터'는 한겨레21 창간팀 등에서 30년간 일했던 저자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국전쟁기의 비극을 묘사한 논픽션이다.

책은 두 가지 이야기를 교차식으로 전개한다. 하나는 유골발굴가 '선주'의 이야기로 한국에서 사학, 고고학을 전공하고 버려진 대학과정을 체질인류학을 공부한 박선주 교수를 모티브로 했다. 박 교수는 현실에서 안중근 의사, 흥수아이 등 역사적 인물의 유해 발굴에 힘썼다.

다른 하나는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민간인들의 참상을 다룬 이야기가 주축이 된다. 점차 두 서사는 맞물리며 1950년대의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준다.

"또 다른 증언도 잊지 않는다. 갓난아기를 업고 일행과 함께 끌려가던 젊은 엄마가 어둠을 틈타 옆 봉발에 짚싸게 숨었다. 갓난아기가 울면 끝장이었다. 그러나 아기조차 울지 않더라고 했다. 정적."

저자는 피해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수록해 한국사의 비극을 정면으로 목도한다. 그동안 직면하기 어려웠던 참극을 다크투어리즘 형식으로 파고든다. <한겨레출판> 2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